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

2007 및 2009 개정 중학교
영어교과서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읽기 지문 분석



2016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우 선 령

교육학석사학위논문

2007 및 2009 개정 중학교
영어교과서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읽기 지문 분석

지도교수 조 윤 경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우 선 령

우선령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8월

주 심 응용언어학박사 오 준 일 (인)

위 원 문 학 박 사 김 은 일 (인)

위 원 교 육 학 박 사 조 윤 경 (인)

목 차

ABSTRACT

I. 서 론	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2 연구 과제	4
1.3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5
2.1 교육과정의 변천사와 어휘 관련 내용	5
2.2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의의와 연계성	7
2.3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평가의 개념	8
2.4 교과서 읽기 지문과 학업성취도평가 읽기 지문의 연계성 ...	10
2.4.1 어휘	12
2.4.2 이독도	14
2.5 선행연구	16
III. 연구내용 및 방법	20
3.1 분석대상	20
3.2 분석 기준 및 분석 방법	24

3.2.1 이독도 지수 측정	24
3.2.2 어휘 측정	25
3.3 자료 분석	26
IV. 결과 분석 및 논의	28
4.1 2007 개정교과서와 2013년, 2014년 학업성취도평가 읽기 지문의 어휘 및 이독도 분석	28
4.2 2009 개정교과서와 2015 학업성취도평가 읽기 지문의 어휘 및 이독도 분석	36
4.3 2007 및 2009 개정교과서와 2013, 2014, 그리고 2015년 학업성취도평가 간 분석	43
V. 결론 및 제언	45
5.1 결론	45
5.2 제언	47
참고문헌	49

표 목 차

<표 1>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사용 가능한 새로운 어휘의 수	6
<표 2>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사용 가능한 새로운 어휘의 수	7
<표 3> 평가 교과 및 범위·문항	9
<표 4> 미국 학년 체제와 나이 대응	16
<표 5> 분석 대상 교과서와 학업성취도평가 지문	21
<표 6> 2007 개정과 2009 개정 교과서의 시행년도	22
<표 7> 교과서별 읽기 지문과 성취도평가 읽기지문의 단어수	23
<표 8> 이독도지수와 산출공식	24
<표 9> 2007 개정 A교과서 어휘 분석	30
<표10> 2007 개정 A교과서 이독도 분석	31
<표 11> 2007 개정 B교과서 어휘 분석	32
<표 12> 2007 개정 B교과서 이독도 분석	33
<표 13> 2007 개정 C교과서 어휘 분석	34
<표 14> 2007 개정 C교과서 이독도 분석	35
<표 15> 2009 개정 A교과서 어휘 분석	37
<표 16> 2009 개정 A교과서 이독도 분석	37
<표 17> 2009 개정 B교과서 어휘 분석	39
<표 18> 2009 개정 B교과서 이독도 분석	39
<표 19> 2009 개정 C교과서 어휘 분석	41
<표 20> 2009 개정 C교과서 이독도 분석	41
<표 21> 성취도평가의 연도별 어휘 분석	44
<표 22> 성취도평가의 연도별 이독도 분석	44

**An Analysis of the Reading Passages in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Based on the 2007 and 2009 Revised National
Curriculum and the National Achievement Education Test**

Woo, Sun Lyou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vocabulary levels and readability of reading passages in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based on the 2007 and 2009 revised national curriculum and the National Achievement Education Test(NEAT). Through the analysis of reading passages in the textbooks based on the 2007 and 2009 revised version and the 2013, 2014, and 2015 NEATs, this study shows that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textbooks is suitable for NEAT and suggests an alternative plan to help improve the textbooks' efficiency according to the result.

The study attempted to address the following questions: (1) What are the vocabulary levels and readability of the 2007 revised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and 2013 and 2014 NEAT? And (2) what are the vocabulary levels and readability of the 2009 revised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and 2015 NEAT? Reading passages from eighteen English textbooks and three NEATs were compiled into corpora. They were analyzed using VocabProfile and

Readabi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vocabulary levels of the 2007 revised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A, B, C are lower than those of the 2013 and 2014 NEATs in type-token ratio, K2, K3-k25, AWL. This means that the level of vocabulary used in the two NEATs is more difficult and varied than those of textbooks. Likewise, the average readability of the 2013 and 2014 NEATs was 5.3, whereas the average readability of the 2007 revised textbooks was 3.8. This result shows that the readability level of the NEATs is higher than that of the 2007 textbooks. Secon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2015 NEAT and 2009 revised textbooks revealed that the 2015 NEAT had a higher readability level than the 2009 revised textbooks. While the average readability of the 2015 text was 4.4, the average readability of the 2009 revised textbooks was 3.3. In short, the level of the 2015 NEAT is higher than that of the textbooks in terms of readability and vocabulary. Both the 2007 and 2009 revised textbooks demonstrated a wide gap in readability and vocabulary, as is shown above. It is considered that the students who studied using both the 2007 and 2009 revised textbooks would have difficulty solving the NEAT. Moreover, the vocabulary and readability based on the 2007 and 2009 revised texts were the cyclically established lessons among three grades. However, the lessons found early in the text, for example, lessons 1, 2, and 3 feature very difficult vocabulary related to K3-K25,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students to study them.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gap between the NEAT and textbooks should be discussed. If the NEAT were more difficult than the textbook, and the lessons found early in the texts featured very difficult vocabulary, students who have only studied the textbook would lose interest. These findings also suggest that the revised textbooks and the NEAT need to be adjusted to the level of the reading passages.

I.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이하 성취도평가)는 매년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국단위로 시행되는 국내 유일의 국가수준 성취도평가이다. 본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중학교 3학년 성취도평가는 중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범교과 소재¹⁾로 규정하고, 평가 문항은 해당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교과별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이수지 & 김은정, 2010). 그러므로 성취도평가는 해당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와 그 목표에 맞추어 제작된 교과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중학교에서 시행되는 영어 평가의 경우 1학기 중간고사는 4월 말~5월 초, 기말고사는 6월 말~7월, 2학기 중간고사는 9월 말~10월 초, 기말고사는 12월 중순이나 정확한 시기는 학교마다 다르다. 교사에 따라 쪽지시험이나 단원평가를 보는 경우도 있으며, 학교에 따라 수행평가를 보기도 한다. 3학년 6월경에 학업성취도평가를 보며, 영어 듣기평가는 매년 시행한다. 그러나 학교마다 선정하는 교과서와 출판사가 다르고 지역이나 학군에 따라서도 교육의 편차가 커 학생들의 실력을 전국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시험이 무엇보다도 절실하였다. 이에 1998년부터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평가가 초, 중, 고등학교에서 매해 시행되었으나, 2013년부터는 초등학교 성취도평가가

1) 범교과소재란 여러 교과에 널리 언급되면서도 통일된 체계가 없는 내용을 하나의 독립 영역으로 모아서 편성한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즉 성취도평가는 각 교과의 지식이나 기능, 경험을 필요에 따라 재구성하여 학생의 흥미나 관심, 문제, 특정 체제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폐지되고 중, 고등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해마다 시행하는 성취도평가는 서로 다른 개정교과서와 해당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전국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 수 있고, 평가와 함께 설문 조사를 하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 향상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3)의 학업성취도평가의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영어과는 4 영역인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를 평가하며 듣기와 읽기가 직접적으로 평가되며 말하기와 쓰기도 간접적으로 평가된다. 영어과 성취도평가의 문항정보를 살펴보면 듣기를 제외한 문항 대부분은 읽기와 관련해서 문제를 풀게 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 영어 공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교과서의 경우 국가의 교육 정책에 영향을 받으며 제작된다. 그리고 수업시간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된 교과서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현재 우리나라 중등 영어 공교육의 교과서 선정은 학교장 권한으로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경우에 담당교사가 목록을 선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하는 방식으로 선정된다. 영어 교과서는 영어를 가르칠 때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가장 분명하고 보편적인 형식으로 제작한 것으로(Brown, 2007),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내용과 수준의 영어 교과서를 제작하고 선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영어 교과서에 대한 의존도는 높은 편이다(오성순, 2003; 이은정, 2008).

그러므로 교과서가 절대적인 학습교재가 되는 상황에서 성취도평가와 교과서 간의 연계성을 분석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까지 학업성취도평가와 중등 교과서 간의 연계성을 분석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고광윤 & 박정준, 2007; 김정렬, 2013;

전문기, 2011; 전문기 & 임인제, 2009, 2010; Kim & Ma, 2012)은 이독도와 어휘 난이도를 파악하여 교과서 간에 혹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등영어 교과서간의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취도 평가와 교과서를 비교 분석한 연구는 아직 미미하다. 중학교마다 교과서가 다르고, 출판사가 다른 이 시점에서 전국단위로 시행하는 성취도평가는 객관적인 학생들의 실력을 가늠하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성취도평가는 전국단위의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학년에 맞게 발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동시에 선택하여 배우고 있는 교과서가 얼마나 효과적인가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특정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로 연계해서 공부한 학생이 3학년이 되어서 치르는 성취도평가는 그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결과를 통하여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가 얼마나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교과서가 얼마나 교육과정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 교과서별 교육과정의 수행 정도도 알 수 있다. 또한, 교과서와 성취도평가 간의 밀접한 연계는 학생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사교육을 줄일 수 있어서 공교육의 효과를 더욱 발전시킬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매해 시행되고 있는 중학교의 영어 학업성취도평가와 개정에 따른 해당 교과서 간의 분석은 반드시 필요한 연구라 하겠다.

1.2 연구 과제

본 연구의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7 개정 연계 교과서와 2013년, 2014년 학업성취도평가 읽기 지문의 어휘와 이독도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2009 개정 연계 교과서와 2015년 학업성취도평가 읽기 지문의 어휘와 이독도 수준은 어떠한가?

1.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 개정 교과서 약 17종에서 3종, 2009 개정 약 13종에서 3종을 분석하였으므로,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읽기 지문 중심으로 어휘와 이독도 수준만을 분석하였으므로, 듣기와 말하기 쓰기를 포함시킨 결과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2007 개정 중학교 영어 교과서와 2013년, 2014년 성취도평가의 읽기 지문을 어휘와 이독도로 분석하고자 한다. 즉 2015년 2009 개정 교과서 읽기 지문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여 교과서와 성취도평가 간의 적합성을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에 중학교 교육과정의 변천사 및 의의, 영어 교과서의 의의와 연계성, 성취도평가의 개념, 그리고 어휘 분석과 이독도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교육과정의 변천사와 어휘 관련 내용

교육과정이란 교육과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내용을 선정하고 선정된 내용을 조직하여 지도하는 교육의 종합계획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에 대한 계획이며 실제 교육상황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그 시대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1945년 해방 후에 최초의 교육과정 제정을 시작으로,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기(1945~1946), 교수 요목기(1946~1954), 제1차 교육과정기(1954~1963), 제2차 교육과정기 (1963~1973), 제3차 교육과정기(1973~1981), 제4차 교육과정기(1981~1987), 제5차 교육과정기(1987~1992), 제6차 교육과정기(1992~1997), 제7차 교육과정기(1997~2007), 2007개정교육과정(2007~2010), 2009개정교육과정 (2011~2015)로 나뉜다(권낙원, 2011).

제7차 교육과정이 고시된 때(1997년)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나 '일시-전면' 개정 체제에서 '수시' 개정 체제로 변화하면서 2007년, 2009년 개정이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2007, 2009 개정의 어휘 관련 핵심적인 내용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과서에서의 어휘 사용과 관련한 지침들은 교육과정에서 모두 다루고 있다. 현재의 2009 개정 교육과정은 2년 앞선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수정·보완하여 고시하였다. 따라서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어휘 관련 지침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두 교육과정 사이에서 어휘와 관련하여 어떤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알 수 있다(권낙원, 2011). <표 1>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새로운 어휘의 사용과 관련한 내용이다.

<표 1>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사용 가능한 새로운 어휘수

학년	낱말 수
3학년	120 낱말 이내
4학년	120 낱말 이내
5학년	140 낱말 이내
6학년	140 낱말 이내
누계: 520 낱말 이내	
7학년	170 낱말 이내
8학년	280 낱말 이내
9학년	390 낱말 이내
누계: 840 낱말 이내	
총계: 1360 낱말 이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초·중등은 총 1360개의 어휘를 습득해야 한다. <표 2>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밝히고 있

는 어휘 수에 관한 표로, <표 1>과 비교했을 때 초·중학교 모두 어휘수가 줄었다.

<표 2>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사용 가능한 새로운 어휘수

학년 군	낱말 수
초등학교 3~4 학년 군	240낱말 내외
초등학교 5~6 학년 군	260 낱말 내외
	누계 500낱말 내외
중학교 1~3학년 군	750 낱말 내외
	총계 1,250낱말 내외

살펴본 것처럼 사용 가능한 단어 수가 2009 개정에서 초등학교의 경우 520개에서 500개로, 중학교의 경우 840개에서 750개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즉 어휘 학습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을 알 수 있다.

2.2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의의와 연계성

이성희(2006)는 좋은 교과서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첫째로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학습 목표와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되 그 내용 및 구조 면에서 학습자의 필요, 관심, 수준 등 학습자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들었고 둘째로는 좋은 영어 교과서는 사회, 교육 및 문화적 환경을 적절히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으로 영어 교과서는 교과서가 사용되는 특정 환경 및 상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교과서의 내용은 영어 사용국의 사회 및 문화를 편견에서 벗어나 균형 있게 반영

하되 그 내용 및 소개 방법이 교육적으로 적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좋은 영어 교과서는 교과서를 사용하는 교사가 사용하기에 비교적 편리하며 교과서 내용을 교육 현장에 적용할 때에 교사가 스스로 나름대로 융통성 및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EFL 상황인 우리나라에서 수업내용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고, 교사의 가르치는 활동과 학생들의 학습에 균형을 이루게 하는 교과서 사용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영어교육 현장에서와 같이 교사와 학생 모두의 교과서 구성 및 내용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는 교과서가 교육과정상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영어교육 현장에서 교과서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교과서의 선택이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본다(이성희, 2006).

영어교육 현장에서 교과서는 학생과 교사에게 학습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학습 목적에 맞는 학습 활동을 포함하며, 학습 내용을 숙지하는데 도움을 줄 보충 학습 활동과 참고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유도한다(Cunningsworth, 1995; Littlejohn, 1998).

2.3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평가의 개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 개인별 성취수준 파악, 기초학력 보정 및 교육과정 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국어, 수학, 영어 교과에 대해 시행한다. 초등학교는 2013년부터 실시하지 않고 있다(<표 3> 참조).

<표 3> 평가 교과 및 범위·문항 유형

학년	교과	범위	시간
중학교 3학년	국어, 수학, 영어 과학*(표집), 사회*(표집)	중학교 1, 2년 전 과정 및 3학년 1학기 과정	교과별 60분
고등학교 2학년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영어 : 범교과 소재 수학 : 수학 I · II	교과별 60분

교육부에 따르면, 2015년 성취도평가는 학생 개인 및 단위학교의 학업 성취수준을 파악하여,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학습 결손을 보충하고, 교육과정 개선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8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5년 평가의 주요 내용은 중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교과를 공통으로 평가하고, 사회, 과학은 표집평가로 시행된다. 평가 범위는 교육과정 현황 조사를 통해,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 내용으로 공통 범위를 정하였다. 고등학교 평가 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이고, 평가 범위는 선택교육 과정이 적용되므로 교육과정 현황조사를 통해 1학년 공통 범위로 정하였다. 2015년부터는 온라인 출력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학교에서 개인별 평가 결과표를 출력해서 8월 말에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학생들은 개인별 성적 결과표를 통해 교과별 성취수준 4단계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및 각 교과의 세부 영역별 성취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교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 교과별 성취수준 3단계 비율(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및 향상도를 공시한다. 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라 2학기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보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며, 평가결과를 기초학력 지원 사업 및 교육과정 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한다(교육부, 2015). 성취수준 분석 결과를 보면, 중·고등학교의 전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3.9%로 2014년도와 동일하며,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은 77.4%로 전년 대비 3.4% 감소하였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2015년 실시한 중학교 3학년 영어 성취도평가의 문항정보를 살펴보면 40 문항 중 11문항이 대 영역 듣기 문제였고, 4문항이 중 영역 듣기 문제였으며, 듣기 문항이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은 37.5%의 비율이고, 대 영역 읽기 문항이 17문제, 중 영역 읽기 문항이 8문제로 전체 문항에서 읽기와 직접 관련된 문항이 전체 문항정보에서 62.5%의 비율을 보였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또한, 지난 2013년, 2014년 성취도평가의 문항정보에서도 변함 없이 동일하며, 이 비율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읽기 문항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2.4 교과서 읽기 지문과 성취도평가 읽기 지문의 연계성

언어습득의 방법으로 동서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하게 인정받고 있는 것은 읽기이다. Krashen(1993)은 EFL 환경에 있는 언어 학습자들이 교실 밖에서도 지속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고, 아동의 관심을 자아낼 수 있는 읽기 방법으로 스스로 책 읽기를 강조하였으며, 또한 책을 읽는 것은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원천이고, 내용을 이해하면서 책을 읽는 것은 읽고 쓰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학생들을 학교 교과 학습활동에서 성공적으로 이끄는 방법이라 주장하였다. 읽기란 읽기 행위에 작용하는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요인이 이루어내는 복합적인 과정을 잘 통합해야 하는 인지적인 과정이다. 즉 읽기는 글에 대한 사전 정보와 글이 지니고 있는 정보가 독자의 정신적 활동을 통해 새로운 정보로 구성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천경록 & 이재승, 1997).

우리나라 영어 수업은 대부분이 교실영어 수업이자 교과서 위주의 읽기 중심이므로, 읽기가 시험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성취도평가에서 사용하는 문항은 각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과서에 바탕을 둔 문항이며, 성취도평가는 개인과 학교 사회에 의미 있는 평가이므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특정 개정교육과정에 속한 학생들이 해당 교과서로 공부한 후 그 개정 교육과정에 연관된 성취도평가를 치고, 그 결과를 보고 분석하는 것은 교육과정과 교과서 간의 바른 연계를 알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 결과에 따라서 개정 교육과정과 해당 교과서와의 적합성을 알 수 있고, 앞으로의 개정교육과정과 영어교과서 제작 및 성취도평가 수준의 발전을 위하여 상당히 중요한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과서와 학업성취도평가 간의 분석이 아직까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군다나 개정 교육과정과 그에 해당하는 교과서 간의 연계성 분석은 이루어진 적이 없다.

개정 교과서간의 연계성 분석과 성취도간평가의 분석, 또 각 개정 간의 교과서와 성취도평가를 연결한 분석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매해 성취도평가 후에 발표되는 결과는 전국단위의 성취도평가를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되므로 우리나라 영어발전을 위해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뿐 아니라, 현직에서 일하는 관련 영어 분야 종사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읽기 지문에 연관된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어휘와 이독도 분석, 그리고 학업성취도평가에 따른 어휘와 이독도 분석, 그 둘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향후 성취도평가 시험 출제의 경향과 교과서의 어휘, 읽기 정도를 정하는 데 상당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2.4.1 어휘

어휘를 세는데 있어서 어떤 어휘를 셀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셀 것인지에 대한 방법은 다양하다. 그 방법들 가운데 본 연구에서 기준으로 사용할 어휘 변이는 출현형(token), 낱말유형(type), 비율(ratio)을 기준으로 한다. 먼저, 출현형은 텍스트의 총 단어 수를 의미하고 다음으로, 낱말유형은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 중 중복 없이 한 번씩만 집계했을 때 보이는 단어의 유형으로 단어의 형태가 다르면 다른 유형으로 간주한다(신동광 & 주현우, 2008). 비율(유형-출현형)은 낱말유형을 출현형으로 나눈 값으로 텍스트의 밀도(density)를 측정하기 위한 수치이다. 다시 말하면, 출현형이란 지문을 구성하는 개별 낱말 각각을 지칭하고, 유형이란 지문을 구성하는 낱말 중에서 고유한 철자의 형태를 가지는 낱말을 가리키며, 어휘군이란 낱말의 기본형과 굴절 및 파생 변이형을 포괄하는 한 무리의 밀접하게 관련된 낱말들을 일컫는다(오준일, 2014). 예를 들어,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이라는 문장에서 출현형의 수는 8개, 유형의 수는 do의 중복으로 7개, 그리고 어휘군의 수는 Rome과 Romans가 같은 어휘군에 속하므로 유형보다 하나 더 적은 6개가 된다. 비율은 0.87로 숫자가 높을수록 다양한 형태의 어휘가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Laufer(1992)에 의하면, 지문에 사용된 전체 출현형의 95%정도를 알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목적을 위해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대학생들에게 학술적 성격의 지문과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모르는 어휘에 밑줄을 치도록 하고, 독해 시험을 치르게 했다. 합격기준이 되는 55%의 점수를 넘는 대학생들의 지문에서 95% 정도의 출현형을 알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Laufer(1992)는 이 기준으로 볼 때, 진정성이 있는 지문을 교사나 사전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읽고 이해하는 데 3,000~5,000어휘군 정도를 알고 있으면

충분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지문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어휘 수준이 다를 수 있으며, 임의로 설정된 55%의 이해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반면에, Hu와 Nation(2000)은 소설을 토대로 지문에 사용된 80%, 90%, 95%, 그리고 100%의 출현형을 아는 대학생들의 지문 이해도를 선다형 시험과 내용 회상 시험(cued written recall)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90% 이하의 출현형 수준은 읽고 이해하는 데 큰 장애를 초래하였고, 95% 수준의 피험자 중 일부만이 적절한 이해도(선다형 시험의 약 86%, 회상 시험의 56%)를 나타냈으며, 지문 출현형 중 98~99% 정도를 알아야 타인의 도움 없이 지문을 읽고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Nation(2006)은 지문에 사용된 어휘 출현형의 95% 정도만으로는 지문의 이해에 장애가 발생하며, 98~99%의 출현형을 알아야 적절하게 지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오준일, 2014에서 재인용).

이상의 연구에서처럼 타인의 도움 없이 지문을 읽고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으려면 지문의 어휘군 98%를 알아야 한다. 이것을 중학교 과정에서 보면 2007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학습자는 새로운 어휘 1360개의 98%인 1333어휘군, 2009개정 교육과정 학습자는 1250의 98%인 1225어휘군이다.

2.4.2 이독도

성취도평가와 교과서의 적합성을 알고자 두 자료의 읽기지문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이독도(readability)를 사용하였다. 이독도란 어휘와 문장이 읽기에 쉬운 정도를 의미하며, 이독도 공식은 어휘 난이도와 문장 길이를 사용하여 텍스트의 난이도를 예측해줄 수 있다(Dubay, 2004). 이독도의 요인은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어휘, 구문이라는 유형의 통사 요소를 포함하므로(김한경, 1998) 이독성 측정을 통하여 교재의 읽기 지문이 학습자의 수준에 적절한 난이도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이독도 지수에 관한 연구는 1978년에서 1987년 사이에 이루어졌다(Parker, Hasbrouck & Weaver, 2001). 이후 이독도 연구는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최근 영어교육 분야에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개별 학생에게 적합한 읽기 자료를 선택하기 위해 적절한 읽기 난이도 지수가 필요했다. 둘째, 미국에 LEP(limited English proficiency),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및 일반 교육프로그램이 늘어났다(Parker, Hasbrouck & Weaver, 2001). 이 두 가지 요인의 강조점은 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읽기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하옥이, 2015에서 재인용). 이독도의 종류는 Flesch formulas, Dale-Chall formula, Fog index, Spache formula, Fry's readability graph, Coleman formula, Smog formula 등 여러 종류가 있다(조석주, 1983).

본 연구에서는 이독도 지수를 연구한 장유경(2012)에 따라 다른 이독도 지수들에 비해 높은 점수를 얻은 Flesch-Kincaid Grade Level, Gunning Fog Index를 이독성 측정 기준 Automated Readability Index으로 삼으며, 이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Automated Readability Index는 텍스트의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수이다. 공식을 통해 산출된 지수는 입력된 텍스트를

읽기에 적합한 학년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에 요구되는 나이를 짐작할 수 있다. 등급은 0-12로 표시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난이도는 높아지고 고학년 수준의 지문으로 간주한다.

Flesch-Kincaid Grade Level은 교육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이독도 테스트로 Flesch-Kincaid Reading Ease를 개선한 것이다. 최저점에서 6점까지의 텍스트는 초등학교 학생 정도가 읽기에 적합하고 7점은 7학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표 4>는 미국 학년 체제와 나이를 대응시킨 열거표로 이는 지수 분석에 사용된다.



<표 4> 미국 학년 체제와 나이 대응

학년 체제	나이
Kindergarten	5-6세
1st grade	6-7세
2nd grade	7-8세
3rd grade	8-9세
4th grade	9-10세
5th grade	10-11세
6th grade	11-12세
7th grade	12-13세
8th grade	13-14세
9th grade	14-15세
10th grade	15-16세
11th grade	16-17세
12th grade	17-18세
College	18-22세

2.5 선행연구

본 절에서는 교과서와 성취도평가를 비교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하옥이(2015)는 교과서와 성취도평가의 읽기지문을 어휘와 이독도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2009개정 1학년, 2학년, 3학년 영어 교과서를 출판사 별로 임의로 3종을 선택하여 총 9권과 2012, 2013, 2014년의 성취도평가를 그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Flesch-Kincaid Grade Level Index를 사용하여 이독도를 분석하면서 아울러 평균 단어 수, 문장 당 평

균 단어 수, 평균 문장 수를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2년과 2013년 성취도평가의 평균 이독도는 6.1과 6.0으로 분석되었고, 반면에 2014년에 성취도평가는 평균 이독도는 5.3이었다. 교과서 A, B, C의 이독도는 가장 높은 단계의 3학년 교과서의 경우 각각 5.3, 5.6, 3.2로 나타나, 성취도평가와 교과서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단어 수에서도 성취도평가가 더 높았다. 이와 같은 차이는 성취도평가가 교과서만으로 공부한 학생이 치르기 힘든 시험을 의미한다.

이수지와 김은정(2010)은 중학교 영어교과서 활동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문항을 기능별로 비교·분석하여 이들이 교육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연구하였다. 결과적으로 볼 때, 4가지 영역의 비율이 교과서의 경우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의 순이었고, 학업성취도 경우는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의 순이며, 둘 다 균형 있는 반영이 되지는 못하였다고 분석했다. 즉,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활동이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 좀 더 성취도평가에 반영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몇몇 선행연구들은 교과서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독해지문을 비교 분석하였다. Kim과 Ma(2012)는 영어교과서Ⅱ와 2012년 수능의 본문을 이독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수능의 이독도는 10.14였고 7개의 교과서는 평균 이독도는 7.48로 교과서가 수능보다 읽기수준이 훨씬 쉬우며, 학생들은 교과서보다 수능기출문제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록(2013)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실질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영어교과서, EBS 수능 연계 교재,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New Dale-Chall 이독성 공식으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교과서 3종은 이독도가 평균 수치는 6.74~6.98 정도로 2007개정에 적합했으나 단원에 따른 연계성이 없었고,

2011년, 2012년 EBS 수능특강의 평균 이독성 수치는 각 7.39와 7.53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냈지만, 영어 II 교과서 전체의 평균 이독성 수치가 6.84임을 고려하면 학교 교육과정 보충 학습 자료인 EBS 수능 교재가 고등학교 교육 과정보다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학년도 및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의 이독성 수치 평균을 살펴보면, 2012학년도 수능에서는 7.39이지만 2013학년도 수능에서는 조금 상승하여 7.62를 나타내고 있다. 영어 II 교과서의 평균 이독성 수치가 6.84임을 고려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이 학교 교육과정보다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EBS 수능특강 외국어 영역의 이독성 평균 수치가 7.39 및 7.53 정도이므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이 학교 교육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EBS 수능 영어 교재의 수준을 반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수능에서 70% 정도 반영되는 EBS 수능 영어 교재가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선다면 대학수학능력시험 또한 교육과정의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이 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공교육이 대학 입학시험에 대한 학생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없다고 연구는 밝혔다.

이제우(2016)는 교과서, 수능, EBS 연계 교재 읽기 지문에 나온 어휘가 학습자들에게 부담을 주는지를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영어 I, 영어 II 교과서 16권, 2005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의 수능 영어 시험 및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발행된 EBS 연계 교재 22권으로 코퍼스로 구축하여 WordSmith Tools, GSL-AWL, BNC-COCA-25000를 비교·분석을 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교과서, 수능, EBS 연계 교재 사이에는 어휘 수준 차이가 존재했고, EBS 연계 교재가 교과서와 수능보다 학습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어휘를 요구하므로 EBS 연계 교재가 학습

자들에게 어휘 학습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준일(2014)의 고등학교 「영어 II」와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지문에 사용된 어휘 수준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지문에 사용된 어휘를 분석하는 방법은 Vocabulary Profiler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그 결과 독해를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출현형의 95% 혹은 98%에 해당하는 어휘군의 수의 경우 수능연계교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내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수능, 고등학교 교과서, 그리고 EBS 연계교재의 독해 지문의 난이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반면에, 중학교 영어 교과서와 성취도평가 독해 지문의 이독도와 어휘 분석은 하옥이(2015) 및 이수지와 김은정(2010)등에 의해서만 연구되었다. 중학교 3학년에 전국단위로 치르는 성취도평가는 앞으로 3년 후에 있을 수능을 대비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러므로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목표가 분명히 명시된 해당 교과서의 선택과 사용이 요구되며, 아울러 그 교과서로 학습한 학생이 3학년에 치르는 성취도평가는 교과서와 분명한 연계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행연구(하옥이, 2014)는 2015년에 사용 중인 2009 개정교과서를 통하여, 2007 개정 교과서와 연관된 2012년, 2013년, 2014년의 성취도평가를 분석함으로써 정확한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와 해당 학업성취도평가의 연계성을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7 개정 해당 교과서와 2007 개정 학업성취도평가, 2009 개정 교과서와 2009 개정 학업성취도평가를 비교 분석하여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와 성취도평가 간의 연계성을 나타내고자 한다.

Ⅲ. 연구 내용 및 방법

3.1 분석대상

본 연구는 교육과정에 따라 제작된 영어교과서 중에서 2007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교과서 3종을 임의로 선택하여 학년별로 9권을 우선 선정하였다. 분석의 통일성을 위해 동일한 출판사의 2009 교육과정에 따른 3종 교과서 9권 선정하여 총 18권의 읽기 지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성취도평가는 2007 개정에 해당하는 2013, 2014년도와 2009 개정에 해당하는 2015년의 지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편의성과 객관성을 위해 <표 5>와 같이 각 개정별로 2007 개정은 7로 2009 개정은 9로 구분하였으며, 교과서 종류는 A, B, C로, 학년 구분은 각 교과서의 기호 옆에 1, 2, 3으로 표시하였다. 성취도평가의 지문은 연도에 따라서 2013년은 T3, 2014년은 T4, 2015년은 T5로 표기하였다.

<표 5> 분석 대상 교과서와 학업성취도평가 지문

읽기 지문	표기	출판사	학년	저자	단원 수	발행 연도	개정		
2007 개정 중학교 영어 교과서	7A1	지학사	1	이나미 외 6	12	2011	2007		
	7A2	지학사	2		12				
	7A3	지학사	3		11				
	7B1	두산동아	1	김성곤 외	12				
	7B2	두산동아	2	7	11 ²⁾ (1)				
	7B3	두산동아	3		11(1)				
	7C1	천재교육	1	이재영 외 6	12				
	7C2	천재교육	2		12				
	7C3	천재교육	3		12				
2009 개정 중학교 영어 교과서	9A1	지학사	1	양현권 외 9	10	2013	2009		
	9A2	지학사	2		10				
	9A3	지학사	3		10				
	9B1	두산동아	1	김성곤 외 10	10				
	9B2	두산동아	2		10				
	9B3	두산동아	3		10				
	9C1	천재교육	1	이재영 외 10	10				
	9C2	천재교육	2		10				
	9C3	천재교육	3		10				
성취도 평가	T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		
	T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		
	T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2007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는 부록 이외 12개의 단원 및 11개의 단원과 special 단원으로 구성된 반면 2009 교육과정 교과서는 부록 이외에 10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읽기 지문의 어휘와 이독도를 분석

2) 2007 개정 두산동아 출판사는 학교 진도와 형평성을 위하여 special lesson이 배정되어 있다.

하고자 하기에 부록, 그래프와 그림 등을 제외하였고, 각 단원의 제목은 포함을 시켰다. 2007 개정 교과서의 경우 special 단원 포함하여 107개의 단원이고, 2009 개정의 경우 학년별 10개 단원씩 3종의 교과서로 90개의 단원이어서 총 197개의 지문을 코퍼스로 구축하였다. 아울러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시행된 학업성취도평가에서는 연도별로 16번~34번, 서답형 4번~6번의 22문항이 읽기 지문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성취도평가의 분석 지문은 총 66문항이다.

개정에 따른 학년별 교과서의 연계를 보면 2007 개정은 2011년에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시작으로, 2012년에 2학년 교과서, 2013년에 3학년 교과서로 연계하여 그 해 2013년 학업성취도평가를 쳤다. 마찬가지로 2012년도 1학년 학생은 2007 개정교과서로 2013년도에 2학년, 2014년에 3학년을 공부하고 2014년도 성취도평가를 쳤다. 2013년에 중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 2009개정교육과정 교과서로 1학년을 사용하여, 2014년에 2학년, 2015년에 3학년교과서를 사용하여, 2015년 6월에 학업성취도를 쳤다(<표 6> 참조)(교육과학기술부, 2011).

<표 6> 2007 개정과 2009 개정교과서의 시행년도

교육과정	1학년 교과서	2학년 교과서	3학년 교과서	연계된 학업성취도평가
2007 개정	2011년도 1학년	2012년도 2학년	2013년도 3학년	2013년 학업성취도평가
2007 개정	2012년도 1학년	2013년도 2학년	2014년도 3학년	2014년 학업성취도평가
2009 개정	2013년도 1학년	2014년도 2학년	2015년도 3학년	2015년 학업성취도평가

<표 7>은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및 학업성취도평가 읽기 지문의 단어 수를 보여준다. 우선, 교과서의 단어수를 살펴보면, 출현형의 경우 2007 개정 교과서의 단어 수는 학년에 따라 그 연계성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해당하는 성취도평가인 2013년과 2014년의 단어 수는 2014년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2009 개정 교과서도 단어의 출현형에서 역시 그 연계성이 분명하나 2015년 학업성취도평가의 단어 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와 성취도평가 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알 수 있고, 성취도평가의 단어수가 해마다 더 줄어든 것 또한 개정 교육과정교과서와 성취도평가 간에 수준의 불균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교과서별 읽기 지문과 학업성취도평가 읽기지문의 단어수

교육과정	교과서 독해 지문 단어 수			학업성취도평가 독해지문의 단어 수	
	7A1	7A2	7A3	2013	2014
2007 교육과정	1,931	2,708	4,219	학업성취 도평가 2357	학업성취 도평가 2258
	7B1	7B2	7B3		
	2,260	3,160	4,395		
	7C1	7C2	7C3		
	1,696	2,456	4,834		
2009 교육과정	9A1	9A2	9A3	2015 학업성취도평가 2000	
	1,711	2,377	3,250		
	9B1	9B2	9B3		
	1,807	2,726	3,598		
	9C1	9C2	9C3		
	1,950	2,740	3,938		

3.2 분석 기준 및 분석 방법

3.2.1 이독도 지수 측정

본 연구는 최근 교과서를 비롯한 다양한 읽기 지문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이독도로 주로 음절수, 문장 수, 단어수를 세어 분석하는 Flesch-Kincaid Reading Grade Level를 사용하였다. 장유경(2012)의 연구에서도 여러 종류의 이독성 지수를 연령적합성과 상관관계, 학년 구분, 적용 수월성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다른 이독도 지수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종합 점수를 얻는 것으로 Flesch-Kincaid Grade Level 소개하고 있다. 최종 산출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미국 학생의 학년 수준과 다른 하나는 미국 학생들의 실제 나이를 나타내는 읽기 나이로 표시한다(하주연, 2009). 다음 <표 8>은 이독도 지수의 산출 공식이다. 이독도 지수는 영어가 모국어인 학습자들이 해당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식적인 교육의 연수를 나타낸다.

<표 8> 이독도 지수와 산출 공식

이독도 지수	산출 공식
Flesch-Kincaid Grade Level	$0.39 \times (\text{total words} / \text{total sentences}) + 11.8 \times (\text{total syllables} / \text{total words}) - 15.59$

3.2.2 어휘 측정

교과서 읽기지문과 성취도평가의 읽기지문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두 가지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우선 읽기지문 단어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분석 도구는 British National Corpus lists version(Beta); BNC VocabProfile이다. British National Corpus(BNC)는 다양한 영역의 내용을 포괄하는 문자언어와 음성언어 표본으로 구성된 1억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어휘 모음집이며 20세기 후반의 광범위한 영국영어의 단면과 음성언어, 문자언어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사실상 BNC는 공식적으로 20세기 후반의 영국영어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떤 특별한 주제나 분야에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양한 분야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편으로 BNC는 현대 영국영어에 초점을 두면서 비 영국영어나 외국어를 포함하기도 한다. 문자언어와 음성언어의 두 언어 영역의 표본으로 구성된 1억 개의 단어모음 가운데서 BNC의 90%를 차지하는 문자언어는 지역신문, 중앙일간지, 전문가의 정기 간행물, 저널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으로부터 발췌되었다. 그리고 텍스트 내용을 구성하는 어휘는 모두 세대와 관심을 바탕으로 학문서적, 대중소설, 출판물, 비출판물, 학교나 대학의 에세이에서 발췌한 단어들로 구성되어 즉흥적이고 비공식적인 대화나, 공식적인 업무, 정부회의, 라디오 쇼, 전화 대화와 같은 여러 분야의 내용을 철자표기로 표현한 단어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VocabProfile는 많은 연구조사와 교육목적으로 사용되며 연구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어휘 분석을 통해 어떤 종류의 어휘가 텍스트에 쓰이고 있는지 또한 텍스트에 사용된 어휘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VocabProfile의 영어어휘의 대부분은 Lexical Frequency Profiler, British National Corpus lists(BNC)를 바탕으로 빈도어휘 정도에 따라 단

계별 1000개의 어휘로 이루어진 총 20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실행결과 분석 텍스트에 사용된 어휘를 20단계의 빈도어휘로 분류하고, 세부적으로 family(어족), type(낱말유형), token(출현형)으로 개별분석 되어 각각 비율로 나타낸다. 한편으로 프로그램의 어휘목록에 텍스트에 사용된 어휘가 없어도 그 비율 또한 별도로 표시되어 텍스트에 사용된 모든 어휘를 알 수 있게 되어있으며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그 유용성이 다양하다(서희, 2013).

3.3 자료 분석

학업성취도평가와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읽기 지문의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과서 18종과 3개 학년의 학업성취도평가의 각 지문을 모아 총 21개의 텍스트 파일을 만들었다. 각 코퍼스를 만들 때 분석의 편의를 도모하고 일관성을 가지게 하며 불필요하게 어휘수준을 높이지 않기 위하여 그림과 표는 그 내용만 남기고 다 지웠다. 성취도평가와 교과서의 지문에 사용된 어휘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British National Corpus의 밴드별 분포(BNC-COCA, 1-25), 어휘군 및 낱말유형의 수, 출현형과 유형의 비율(type-token ratio), 유형별 출현형 빈도(tokens per type), 그리고 학술 어휘(AWL)의 비중을 분석하였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1000단어 수준을 K1으로 보고, 가장 빈도가 낮은 1000단어 수준을 K25 본다. 아울러 3000어휘군을 초과하는 어휘의 분석으로 중학교 교과서의 어휘학습 부담 정도에 관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K3-K25의 어휘가 중학생으로서

는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어휘들이다. 이독도의 경우도 같은 코퍼스를 이용하여, 성취도평가와 교과서지문 간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의 편의상 백분위는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IV. 결과분석 및 논의

4.1 2007 개정교과서와 2013년, 2014년 학업성취도평가 읽기 지문의 어휘 및 이독도 분석

첫 번째 연구 질문인 2007 개정교과서의 읽기 지문과 2013년, 2014년 학업성취도평가의 어휘와 이독도 수준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우선 각 코퍼스의 어휘수준을 K1부터 K25까지(off-list포함)와 AWL으로 분석하였으며, 또한 이독도 분석도 실시하였다.

우선, 2007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7A1, 7A2, 7A3의 어휘를 보면(<표 9> 참조), 출현형의 개수가 1931, 2708, 4219개로 학년별로 연계성 있게 증가하였고, 낱말유형도 571, 777, 1133개로 연계성이 있었으며, 유형-출현형 비율은 0.3, 0.29, 0.27로 1학년 지문에 더 다양한 어휘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고빈도 어휘군 K1의 비중은 연계교과서에서 86.02, 83.49, 85.21의 비율로 2학년이 오히려 3학년보다 고빈도가 적어서 어휘수준이 더 높았다. K2는 2학년과 3학년의 비율이 비슷하였으며, K1과 K2를 더한 값은 90.99%를 차지한다. K3-K25의 비율은 4.19, 3.77, 3.74로 중학교 과정에서 다소 힘든 어휘가 학년전체에 분포되어있으며, 특히 1학년이 가장 높았다. AWL의 경우0.83, 1.07, 2.32로 비중 연계 있게 분포되었으며 offlist의 경우도 평균 4.54%를 차지했다.

한편,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도평가인 2013년과 2014년 시험은 해마다 3학년에만 시행되므로 그 어휘 수에 있어서 연계성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출현형의 수가 2013년이 2357개로 2014년

2258개보다 더 높은 단어 개수를 나타냈고, 낱말유형도 816개로 770개보다 높았으며, 유형-출연형의 비율도 2013년도 0.35%로 2014년도 0.34%보다 더 높아 2013년에 다양한 어휘가 더 많이 나타났다. 고빈도 어휘인 K1의 경우 2014년이 85.74%로 더 높게 나타나서 단어가 쉬웠으며, K2, K1+K2, K3-K25, off-list, AWL 등의 경우 모두 2013년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2013년 성취도평가 지문의 어휘가 2014년보다 더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표 9> 2007 개정 A교과서 어휘 분석

	7A1 교과서	7A2 교과서	7A3 교과서	교과서 평균	2013 성취도 평가	2014 성취도 평가	성취도 평균
출현형	1931	2708	4219	2953	2357	2258	2308
낱말유형	571	777	1133	827	816	770	793
비율	0.3	0.29	0.27	0.29	0.35	0.34	0.35
K1(%)	1661 (86.02)	2261 (83.49)	3595 (85.21)	2506 (84.91)	1912 (81.12)	1936 (85.74)	1924 (83.43)
K2(%)	96 (4.97)	200 (7.39)	320 (7.58)	205 (6.65)	181 (7.68)	139 (6.16)	160 (6.92)
K1+K2 (%)	1757 (90.99)	2461 (90.88)	3915 (92.79)	2711 (91.56)	2093 (88.8)	2075 (91.9)	2084 (90.35)
K3-K25	81 (4.19)	95 (3.77)	156 (3.74)	132 (3.9)	102 (4.31)	74 (3.26)	88 (3.79)
Offlist (%)	93 (4.82)	145 (5.35)	146 (3.46)	128 (4.54)	162 (6.87)	109 (4.83)	136 (5.85)
AWL (%)	16 (0.83)	29 (1.07)	98 (2.32)	48 (1.41)	89 (3.78)	39 (1.73)	64 (2.76)

<표 10>에서는 2007 개정 A 교과서와 2013, 2014년 성취도평가간의 문장 당 평균 낱말수와 이독도 비교로 A교과서의 문장당 평균 낱말수는 7.41, 9.56, 12.38이며, 이독도는 1학년이 2.9, 2학년이 4.1, 3학년이 5.6으로 증가했다. 성취도평가의 경우 문장 당 평균 낱말수는 2013년이 높았으며, 이독도는 2013년이 5.5, 2014년은 5.0으로 2013년도 평가가 2014년 평가보다 이독도에서도 더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2007 개정 A교과서 이독도 분석

	7A1 교과서	7A2 교과서	7A3 교과서	교과서 평균	2013 성취도 평가	2014 성취도 평가	성취도 평균
문장 당 평균	7.41	9.56	12.38	9.78	11.48	11.14	11.31
낱말 수 이독도	2.9	4.1	5.6	4.2	5.5	5	5.3

다음으로,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B교과서와 학업성취도평가의 독해 지문의 어휘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교과서 7B1, 7B2, 7B3 보면, 출현형의 개수가 2260, 3160, 4395개로 학년별로 연계성 있게 증가하였고, 낱말유형 또한 627, 871, 1147로 연계가 되었고, 유형-출현형 비율을 보면 0.28, 0.28, 0.26으로 3학년 지문이 1, 2학년 지문보다 다양한 어휘수가 적었다. 가장 고빈도 어휘 K1의 경우 1학년 교과서보다 2학년이 더 높아 평이하였다. K2와 K3-K25의 경우 1학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AWL의 비율도 0.18, 1.14, 1.21로 연계성이 있었으며, offlist의 경우도 평균 7.74%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2007 개정 교육과정 성취도평가인 2013년과 2014년 시험은 해마다 3학년에만 시행되므로 그 어휘 수에 있어서 연계성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출현형의 수가 2013년이 2357개로 2014년 2258개 보다 더 높은 단어 개수를 나타냈고, 낱말유형도 816개에서 770개로 높았으며, 유형-출현형의 비율도 2013년도 0.35%로 2014년도 0.34%보다 더 높아 다양한 어휘가 많이 나타났다. 고빈도 어휘인 K1의 경우 2014년이 85.74%로 더 높게 나타나서 2014년 단어가 더 쉬웠으며, K2, K3-K25, off-list, AWL 등의 경우 모두 2013년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2013년 성취도평가의 지문이 2014년보다 어휘에서 더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2007 개정 B교과서 어휘 분석

	7B1 교과서	7B2 교과서	7B3 교과서	교과서 평균	2013 성취도 평가	2014 성취도 평가	성취도 평균
출현형	2260	3160	4395	3272	2357	2258	2308
낱말유형	627	871	1147	880	816	770	793
비율	0.28	0.28	0.26	0.27	0.35	0.34	0.35
K1(%)	1855 (82.08)	2629 (83.20)	3521 (80.11)	2668 (81.80)	1912 (81.12)	1936 (85.74)	1924 (83.43)
K2(%)	96 (4.25)	169 (5.35)	314 (7.14)	193 (5.58)	181 (7.68)	139 (6.16)	160 (6.92)
K1+K2 (%)	1951 (86.33)	2798 (88.55)	3835 (87.25)	2861 (87.38)	2093 (88.8)	2075 (91.9)	2084 (90.35)
K3-K25	96 (4.51)	141 (4.45)	249 (5.66)	162 (3.60)	102 (4.31)	74 (3.26)	88 (3.79)
Offlist (%)	207 (9.16)	221 (6.99)	311 (7.08)	246 (7.74)	162 (6.87)	109 (4.83)	136 (5.85)
AWL (%)	4 (0.18)	36 (1.14)	53 (1.21)	31 (0.84)	89 (3.78)	39 (1.73)	64 (2.76)

B교과서의 문장 당 평균 낱말수와 이독도를 살펴보면, 이독도가 2.8, 4.2, 5로 학년에 따라 점진적으로 연계성 있게 증가했으며, 2013년, 2014년 성취도평가 이독도는 5.5와 5로 문장당 평균 낱말수와 함께 2013년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2007 개정 B교과서 이독도 분석

	7B1 교과서	7B2 교과서	7B3 교과서	교과서 평균	2013 성취도 평가	2014 성취도 평가	성취도 평균
문장 당 평균	6.48	9.33	11.29	9.03	11.48	11.14	11.31
낱말 수 이독도	2.8	4.2	5	4	5.5	5	5.3

다음 <표 13>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C교과서와 학업성취도평가의 독해 지문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교과서 C1, C2, C3의 어휘를 보면, 출현형의 개수가 1696, 2456, 4834개로 연별로 연계성 있게 증가하였고, 유형은 605, 735, 1171로 역시 연계되었으며, 유형-출현형 비율을 보면 0.36, 0.3, 0.24로 1학년 지문이 2, 3학년 지문에 비해 다양한 어휘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가장 고빈도 어휘인 K1의 비율을 볼 때 2학년이 1학년보다 더 단어의 다양성이 없었다. K3에서 K25의 경우는 그 비율에서 학년별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인 교과서 분석을 해보면, K1이 2학년보다 1학년에서 더 높아 1학년 단어가 더 다양하였으며, K2는 학년별로 연계가 되었고, K3-K25는 3학년, 1학년, 2학년의 순으로 1학년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AWL어휘는 학년별로 1.24, 0.94, 1.22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1학년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한편, 2007 개정 교육과정 성취도평가인 2013년과 2014년 시험은 해마다 3학년에만 시행되므로 그 어휘 수에 있어서 연계성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출현형의 수가 2013년이 2357개로 2014년 2258 개보다 더 높은 단어 개수를 나타냈고, 낱말유형도 816개에서 770개로 높았으며, 유형-출현형의 비율도 2013년도 0.35%로 2014년도 0.34%보다 더 높아 다양한 어휘가 많이 나타났다. 고빈도 어휘인 K1의 경우 2014년이 85.74%

로 더 높게 나타나서 2014년 단어가 더 쉬웠으며, K2, K3-K25, off-list, AWL 등의 경우 모두 2013년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2013년 성취도평가의 지문이 2014년보다 어휘에서 더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표 13> 2007개정 C교과서 어휘 및 이독도 분석

	7C1 교과서	7C2 교과서	7C3 교과서	교과서 평균	2013 성취도 평가	2014 성취도 평가	성취도 평균
출현형	1696	2456	4834	2995	2357	2258	2308
낱말유형	605	735	1171	837	816	770	793
비율	0.36	0.3	0.24	0.3	0.35	0.34	0.35
K1(%)	1450 (85.50)	2156 (87.79)	4034 (83.45)	2546 (85.58)	1912 (81.12)	1936 (85.74)	1924 (83.43)
K2(%)	60 (3.54)	142 (5.78)	296 (6.12)	166 (5.15)	181 (7.68)	139 (6.16)	160 (6.92)
K1+K2 (%)	1510 (89.04)	2298 (93.57)	4330 (89.57)	2713 (90.73)	2093 (88.8)	2075 (91.9)	2084 (90.35)
K3-K25	60 (3.55)	63 (2.56)	192 (3.96)	105 (3.32)	102 (4.31)	74 (3.26)	88 (3.79)
Offlist (%)	126 (7.43)	95 (3.87)	312 (6.45)	178 (5.92)	162 (6.87)	109 (4.83)	136 (5.85)
AWL (%)	21 (1.24)	23 (0.94)	59 (1.22)	34 (1.13)	89 (3.78)	39 (1.73)	64 (2.76)

C교과서의 문장 당 평균 낱말수와 이독도를 살펴보면, 이독도가 2.9, 2.9, 4로 1학년과 2학년이 같은 수준인데 반해 3학년이 갑자기 높아져 연계 성에서 실패했다. 2013년, 2014년 성취도평가 이독도는 5.5와 5로 문장 당 평균 낱말수와 함께 2013년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4> 2007 개정 C교과서 이독도 분석

	7C1 교과서	7C2 교과서	7C3 교과서	교과서 평균	2013 성취도 평가	2014 성취도 평가	성취도 평균
문장 당 평균	6.85	7.84	9.66	8.1	11.48	11.14	11.31
낱말 수 이독도	2.9	2.9	4	3.3	5.5	5	5.3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2007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A, B, C는 어휘수
준에 있어서 출현형의 개수나 낱말유형의 수에서는 교과서 모두 연계성 있
게 나타났으나, 유형-출현형의 경우 모두 1학년 교과서가 가장 높이 나타
났다. 고빈도 어휘군 K1의 경우는 A교과서만 제외하고 연계성이 없었으
며, K2의 어휘군은 모두 연계성이 있었다. 고난도 어휘인 K3-K25는 3종
교과서 모두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독도의 경우 1학년은 2.9,
2.8, 2.9로 비슷했고 2학년은 4.1, 4.2, 2.9였으며, 3학년은 5.6, 5, 4로 다른
교과서에 비해서 C교과서가 난이도 조절을 하지 못했다. 살펴본 것처럼 어
휘에 있어서 교재 간 차이가 크게 났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성취도평가인 2013년과 2014년 시험은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출현형의 수가 2013년이 2357개로 2014년 2258개 보다 더 높은 단
어 개수를 나타냈고, 낱말유형도 816개로 770보다 높았으며, 유형-출현형
의 비율도 2013년도 0.35%로 2014년도 0.34%보다 더 높아 다양한 어휘
가 많이 나타났다. 고빈도 어휘인 K1의 경우 2014년이 85.74%로 더 높게
나타나서 2014년 단어가 더 쉬웠으며, K2, K3-K25, off-list, AWL 등의
경우 모두 2013년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2013년 성취도평가의 지
문이 2014년보다 어휘에서 더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교과서의 문장 당 평균 낱말수와 이독도를 살펴보면, 이독도가 교과별로

차이가 심하며, 2013년, 2014년 성취도평가 이독도는 5.5와 5로 문장 당 평균 낱말수와 함께 2013년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4.2 2009 개정교과서와 2015년 학업성취도평가 읽기 지문의 어휘 및 이독도 분석

본 절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와 2015년 학업성취도평가 독해 지문의 어휘 및 이독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2009 개정 교과서 A의 독해 지문에 나타난 어휘 및 이독도 분석 결과는 <표 15>와 같다. 2009 개정 교과서 9A1, 9A2, 9A3의 어휘를 보면, 출현형의 개수가 1711, 2377, 3250개로 학년별로 연계성 있게 증가하였고, 유형 또한 547, 717, 920으로 연계가 되었으며, 유형-출현형 비율은 0.32, 0.3, 0.28로 1학년에 다양한 어휘가 많았다. 고빈도 어휘 K1은 1학년이 가장 높아 연계성이 있었으며, K2도 연계성이 있게 분포되었다. K3-K25인 경우는 1학년 3.29%로 3학년 0.98%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1학년이 가장 높았다. offlist의 변화는 미미하나 AWL 경우 평균 0.82로 연계가 있었다.

2015년 성취도평가를 분석해 보면, K1은 9A교과서 전 학년보다 높고, K2, K3-K25도 역시 성취도평가가 높다. offlist의 경우 성취도평가가 낮았고, AWL의 경우 성취도평가가 높았다.

<표 15> 2009 개정 A교과서 어휘 분석

	9A1	9A2	9A3	평균	2015 성취도평가
출현형	1711	2377	3250	2446	2000
낱말유형	547	717	920	728	758
비율	0.32	0.3	0.28	0.3	0.38
K1(%)	1480 (86.50)	2014 (84.73)	2718 (83.63)	2071 (84.95)	1638 (81.90)
K2(%)	61 (3.57)	151 (6.35)	202 (6.22)	138 (5.38)	152 (7.60)
K1+K2 (%)	1514 (90.07)	2165 (91.08)	2920 (89.85)	2209 (90.33)	1890 (89.5)
K3-K25	65 (3.93)	90 (3.76)	81 (2.49)	79 (3.39)	110 (5.5)
Offlist (%)	103 (6.02)	122 (5.13)	249 (7.66)	158 (6.27)	100 (5.00)
AWL (%)	5 (0.29)	15 (0.63)	50 (1.54)	23 (0.82)	51 (2.55)

9A 전학년 교과서의 이독도를 살펴보면, 2, 3.1, 4.7로 연계성을 가지며, 문장 당 평균 낱말수도 연계성이 있었다. 2015년 성취도평가의 이독도는 4.4고, 문장 당 평균 낱말수는 10.07이다.

<표 16> 2009 개정 A교과서 이독도 분석

	9A1	9A2	9A3	평균	2015 성취도평가
문장 당 평균 낱말 수	7.2	8.68	10.84	8.9	10.07
이독도	2	3.1	4.7	3.3	4.4

다음으로, 교과서 9B에 대한 어휘 및 이독도 분석 결과는 <표 17>과 같다. 2009 개정 교과서 9B1, 9B2, 9B3의 어휘를 보면, 출현형의 개수가 1807, 2726, 3598개로 학년별로 연계성 있게 증가하였다. 낱말유형도 614, 745, 943으로 연계성이 있었고, 유형-출현형 비율이 0.34, 0.27, 0.26으로 1학년 지문이 2, 3학년 지문에 비해 새로운 어휘수가 많았다. 가장 고빈도 어휘인 K1의 비율을 볼 때, 2학년 교과서가 가장 높았고, K2는 연계성 있게 나타났다으며, K3-K25의 경우 1학년이 4.22%로 3학년 3.07%보다 높았다. AWL의 경우 2학년 높았다.

2015년 학업성취도평가와 교과서를 비교해 보면, 출현형 대 낱말유형의 경우를 살펴보면, 9B교과서의 독해지문보다 학업성취도평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고빈도 어휘군인 K1의 경우 2학년 교과서가 가장 높았고, K2의 경우 학업성취도평가가 가장 높았다. K3-K25는 학업성취도평가가 높았으며, offlist의 경우 1학년 교과서가 가장 높았고, AWL의 경우 학업성취도평가가 높았다.

<표 17> 2009 개정 B교과서 어휘 분석

	9B1	9B2	9B3	평균	2015 성취도평가
출현형	1807	2726	3598	2710	2000
낱말유형	614	745	943	767	758
비율	0.34	0.27	0.26	0.29	0.38
K1(%)	1519 (84.06)	2369 (86.90)	2985 (82.96)	2291 (84.64)	1638 (81.90)
K2(%)	90 (4.98)	167 (6.13)	247 (6.86)	168 (5.99)	152 (7.60)
K1+K2 (%)	1609 (89.04)	2536 (93.03)	3232 (89.82)	2459 (90.63)	1890 (89.5)
K3-K25	76 (4.22)	70 (2.58)	111 (3.07)	86 (3.29)	110 (5.5)
Offlist (%)	122 (6.75)	120 (4.40)	255 (7.09)	166 (6.08)	100 (5.00)
AWL (%)	6 (0.33)	37 (1.36)	37(1.03)	27 (0.91)	51 (2.55)

<표 18>에서 알 수 있듯이, 9B 교과서의 이독도는 3.2, 3.8, 5 로 연계성은 있으나 1학년과 2학년의 차이가 미미하며, 2학년과 3학년사이 급속하게 높아졌다. 이독도는 3학년 교과서가 5로 학업성취도평가 4.4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8> 2009 개정 B교과서 이독도 분석

	9B1	9B2	9B3	평균	2015 성취도평가
문장 당평균 낱말 수	7.5	9.28	10.54	9.1	10.07
이독도	3.2	3.8	5	4	4.4

교과서 9C의 어휘 분석 결과를 보면(<표 19> 참조), 출현형의 개수가 1950, 2740, 3938이며, 낱말유형도 530, 675, 945로 학년별로 연계성 있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유형-출현형은 2.39, 1.44, 1.99로 1학년 지문이 2, 3학년 지문에 비해 높아 새로운 어휘수가 많았다. 가장 고빈도 어휘인 K1의 비율을 볼 때, 2학년, 3학년 교과서가 1학년보다 높아서 쉬운 어휘가 오히려 고학년에 많았다. K2의 경우 1학년 교과서가 높았으며, K3-K25의 경우 2.11, 3.06, 2.62로 2학년이 가장 높았고, offlist는 1학년이 가장 높았다. AWL의 경우도 연계성이 있었다.

2015년 학업성취도평가와 2009 개정 C교과서를 비교해 보면, 출현형 대 낱말유형의 경우 학업성취도평가가 높게 나타나서 어휘의 수가 교과서보다 다양했고 고빈도 어휘군인 K1의 경우 2학년 교과서가 가장 높아서 2학년 교과서가 쉬웠을 것이다, K2와 K3-K25의 경우 학업성취도평가가 모두 높았다, offlist의 경우, 평균 4.8%로 1학년 교과서가 가장 높았고, AWL의 경우 평균 0.63%로 학년간 연계가 있었지만, 성취도평가가 2.55%인 반면에, 7C교과서는 평균 0.63으로 큰 차이가 났다.

<표 19> 2009 개정 C교과서 어휘 분석

	9C1	9C2	9C3	평균	2015 성취도평가
출현형	1950	2740	3938	2876	2000
낱말유형	530	675	945	717	758
비율	0.27	0.25	0.24	0.25	0.38
K1(%)	1692 (86.7)	2450 (89.42)	3505 (89.00)	2549 (88.37)	1638 (81.90)
K2(%)	88 (4.51)	106 (3.87)	166 (4.22)	120 (4.2)	152 (7.60)
K1+K2 (%)	1780 (91.28)	2556 (93.29)	3671 (93.22)	2669 (92.60)	1890 (89.5)
K3-K25	41 (2.11)	84 (3.06)	103 (2.62)	76 (2.07)	110 (5.5)
Offlist (%)	129 (6.62)	100 (3.65)	164 (4.16)	131 (4.81)	100 (5.00)
AWL (%)	6 (0.31)	16 (0.58)	39 (0.99)	20 (0.63)	51 (2.55)

9C 교과서는 전체적으로 이독도에서는 연계성이 있으나 그 수준이 다른 교과서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문장 당 평균 낱말수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5년 성취도평가와 비교하면 이독도나 문장 당 평균 낱말 수에서 상당히 큰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표 20> 2009 개정 C교과서 이독도 분석

	9C1	9C2	9C3	평균	2015 성취도평가
문장 당 평균 낱말 수	6.7	8.51	8.09	7.77	10.07
이독도	2.1	2.7	3	2.6	4.4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2007 개정 교과서처럼 전체적인 출현형의 수나 낱말유형수가 연계성 있게 증가하는 것은 보이나, 어휘수준이나 이독도 수준이 2007년 개정교육과정보다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미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중등은 총 1360개의 어휘를 습득해야 하는 반면,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밝히고 있는 어휘 수는 1250개로 언급을 하였다. 유형-출현형의 비율은 보면 2007, 2009개정교과서 모두 1학년에 서 오히려 그 비율이 높아 처음 입학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어휘가 부담되었을 수 있다. 또한 비교적 쉬운 고빈도 어휘 K1의 경우 A 교과서만 제외하고 2학년과 3학년이 비율이 높았고, K2는 비교적 연계성이 있었으나 K3-25의 경우 2-3%정도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1학년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offlist의 비율은 2-6%로 그 비율이 높았으며, AWL의 경우 1%정도로 전 영역에 골고루 분포되었다. 이독도는 그 수준이 많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독도의 평균은 교과서 9A가 3.3, 9B가 4, 9C가 2.6으로 교과서마다 차이가 크며, 세부적으로 보면 학년 간 연계성은 있으나 그 폭이 미미하거나 급변하는 면이 있다. 문장 당 평균 낱말수에 있어서도 연계성은 있으나 차이가 있다.

성취도평가도 2007년에 비교해서 2009년이 어휘 면이나 이독도 면에서 수준이 낮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1학년 교과서에 난이도가 높은 단어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단위 별 분석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각 교과서의 1학년에 나타나는 난이도 차이이다. K3-K25사이의 언어비율이 높다고 해서 단어가 완전하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소 흥미를 잃을 수도 있음에 주의를 해야겠다. 성취도평가와 비교해보면, 2009개정 3종 교과서중 9A만 제외하고, 출현형 수, 낱말의 유형, 출현형 대 유형의 비율 등이 성취도평가가 높았으며, 뿐만 아니라 K2, K3-K25, offlist, AWL 등도 모두 성취도평가가 높았다. 문장당 평균 낱말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학년간

의 연계성은 있었으나, 이독도는 급간의 변화가 미미하거나 심하여, 교과서보다 성취도 평가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4.3 2007 및 2009 개정 교과서와 2013, 2014, 2015년 성취도평가 간 분석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도평가 2013년과 2014년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도평가 2015년을 비교해보면 표 21 에서 보는 것처럼 출현형, 낱말유형에서 단어의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출현형-낱말의 비율에서 2015년이 가장 높아서 어휘가 다양해졌으며, 가장 고빈도 어휘인 K1의 비율 또한 가장 낮아서 어휘는 더 어려워짐을 알 수 있다. K2도 2013년 2014년 평균보다 2015년이 높았으며, 저빈도 어휘인 K3-K25도 2015년이 5.5%로 그전의 평균 3.79%보다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off-list는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지만, AWL 경우는 2014년 1.73%인 반면 2015년은 2.55%로 학술어휘가 상당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단어수에서 2015년이 감소한 듯이 보이나 그 어휘의 수준은 상당히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21에서 살펴보면 문장 당 평균 낱말수나 이독도에서 2013년과 2014년의 평균보다 수준이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어휘의 수준은 높아짐으로 표면적인 수준과 다름을 알 수 있다.

<표 21> 성취도평가의 연도별 어휘 분석

	2013 성취도평가	2014 성취도평가	2013, 2014 평균	2015 성취도평가
출현형	2357	2258	2308	2000
낱말유형	816	770	793	758
비율	0.35	0.34	0.35	0.38
K1(%)	1912(81.12)	1936(85.74)	1924(83.43)	1638(81.90)
K2(%)	181(7.68)	139(6.16)	160(6.92)	152(7.60)
K1+K2(%)	2093(88.8)	2075(91.9)	2084(90.35)	1890(89.5)
K3-K25	102(4.31)	74(3.26)	88(3.79)	110(5.5)
Offlist(%)	162(6.87)	109(4.83)	136(5.85)	100(5.00)
AWL(%)	89(3.78)	39(1.73)	64(2.76)	51(2.55)

성취도평가 간의 이독도를 살펴보면, 문장 당 평균 낱말수가 2013년과 2014년 평균인 11.31%에서 10.07%로 낮아졌으며, 이독도도 그 전 평균인 5.3에 비해 4.4로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표 22> 성취도평가의 연도별 이독도 분석

	2013 성취도 평가	2014 성취도 평가	2013, 2014 성취도평균	2015 성취도평가
문장 당 평균 낱말 수	11.48	11.14	11.31	10.07
이독도	5.5	5	5.3	4.4

V.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본 연구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1, 2, 3학년 각 3종과 2013년 및 2014년에 시행된 성취도평가를 이독도와 어휘로 분석하였다. 또한, 2009 개정 교과서 1, 2, 3학년 각 3종과 2015년에 시행된 성취도평가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여 해당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와 성취도평가 사이의 연계성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7 개정 연계 교과서와 2013년, 2014년 학업성취도평가의 읽기 지문의 어휘와 이독도 수준을 살펴보면, 2007 개정 교과서의 경우 어휘에 있어 출현형이 7A, 7B, 7C 모두 학년 급수가 올라갈수록 그 어휘수가 증가하여 연계성이 있었다. 낱말유형도 3종 교과서 모두 비교적 연계성이 있었다. 고빈도 어휘군 K1의 경우 교과서별로 연계성이 있었으며, K2의 경우도 비교적 연계성이 있었다. K3-25는 저빈도 어휘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나 성취도평가와 함께 많은 수의 어휘가 나타났다. AWL의 경우도 성취도평가와 함께 많은 어휘가 나타났다. 그러나 2013년과 2014년 성취도평가 경우 교과서는 동일하나, 2014년이 어휘수와 출현형에서 모두 감소하였다. 2013년 성취도평가의 난이도보다 2014년 성취도평가의 난이도가 더 낮은 데에는 위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낮아진 2014년 성취도평가의 수준도 여전히 교과서보다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9 개정 연계 교과서와 2015년 학업성취도평가 읽기 지문의 어휘와 이독도 수준은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두 번째 연구 질문을 위해 교과서 A, B,

C와의 연계성을 살펴보면, 출현형과 낱말유형의 경우 3종 교과서 모두 연계성 있게 그 수가 증가했으며 유형-출현형 비율의 경우 교과서가 모두 연계성을 나타내지는 못하였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고빈도 어휘군인 K1의 경우는 3종 교과서 모두 성취도평가보다 훨씬 비율이 높아서 성취도평가보다 교과서가 읽기 쉬웠을 것이다. K2, K1+K2, K3-25, AWL의 비율의 경우 성취도평가가 교과서보다 모두 높게 나타나서 교과서보다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학생이 성취도평가를 치르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예상되는 부분이다. 2013년 성취도평가와 2014년 성취도평가를 2007 개정 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성취도평가의 어휘 수준과 이독도 수준은 교과서보다 더 높았다. 2015년 성취도평가와 2009개정 교과서를 비교해 보았을 때도 역시 성취도평가가 교과서보다 어휘나 이독도에서 난이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2007, 2009의 두 차례에 걸친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 읽기 지문과 성취도평가간의 난이도는 성취도평가가 어휘수준과 이독도 수준에서 높았다. 그래서 교과서만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성취도평가의 문제를 풀 경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정부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가정의 사교육 부담 비율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공교육만으로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풀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자연히 사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된다. 공교육이 보다 분명한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는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의 수준을 높이는 대안과 성취도평가의 난이도를 낮추는 대안을 여러 각도로 연구해 보아야 하겠다.

5.2 제언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연관된 교과서 7A, 7B, 7C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연관된 9A, 9B, 9C를 살펴 볼 때, 교과서는 어휘의 수준을 학생들의 입장에서 좀 더 신중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분석에서 보듯이 고빈도 어휘군 K1과 중학교 어휘범위에 속하는 K2를 제외한 K3-K25와 AWL 단어군은 중학교 수준에서 상당히 어려운 단어다. 이 군에 속하는 단어들이 교과서 전 과정뿐만이 아니라 성취도평가에서도 높은 비율로 출현하였다. 또한, 유형-출현형 비율도 평균적으로 볼 때, 고학년보다 저학년에 더 높게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배우는 영어교과서의 수준은 초등학교와 비교해 크게 차이 나지 않아야 하나, 현재의 교과서는 1학년의 교과서가 2, 3학년 교과서보다 더 다양한 어휘군이 출현되었다. 이는 1학년 학생들이 이전 교육과정과는 괴리감이 있는 단어 노출로 인해 학업에 흥미를 잃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교육부는 다음 교과서를 개정할 때 어휘의 선택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과서의 어휘 수준 고려뿐만이 아니라 성취도평가 난이도에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2013년 성취도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중3과 고2 전체 학생 중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3.4%로, 지난해(2.6%)보다 0.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4).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을 20% 미만으로 이해하는 학생들로,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 실제로, 교육부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2013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계속 성취도평가의 수준을 낮추고 있다.

언급했듯이 2007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필수단어수가 초등누적으로 1360개이며 2009개정은 1250개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하지만 지속해서 교과서

의 수준과 성취도평가의 수준을 낮추는 것만이 교과서와 성취도평가의 수준을 맞추는 대안책이 되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 2009년 개정 교육과정으로 배운 학생들이 3년 후에 수능을 치르기에 이 점을 신중히 고려하여 교과서와 성취도평가의 난이도가 조절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교과서의 수준을 높이는 방안과 성취도평가의 수준을 낮추는 방안 외에 더 효과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겠다.



참 고 문 헌

- 권낙원, 김민환, 한승록, 추광제. (2011). *교사를 위한 교육과정론*. 경기: 공동체.
- 고광윤, 박정준. (2007).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어휘적 연계성에 대한 코퍼스 바탕연구. *영어학연구*, 24, 27-45.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외국어과 교육과정(I-별책 14)*.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8-160호.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1). *영어과 교육과정(별책 14)*.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행 및 관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5). *201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중3 고2 보도자료*.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인적자원부. (2007). *제 7차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김동희. (2015).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영어교과서 읽기 지문의 어휘 수준 분석*.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부산.
- 김민정, 송희심. (2007).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읽기요소 분석. *영어학*, 7(2), 211-238.
- 김명숙. (200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연구의 주요쟁점과 발전방향. *교육평가연구*, 16(1), 241-264
- 김병수. (2012).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 듣기 활동 분석*.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구.
- 김선혜. (2011). *읽기 능력에 따른 상위인지 인식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충북.

- 김정렬. (2013). 초중등 영어교육 연계성 문제: 영어교과서의 계열성을 중심으로. *언어연구*, 50(1), 161-184.
- 박남영. (2014).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1학년 교과서 분석.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부산.
- 박은영. (2015).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2학년 영어교과서 읽기 영역 분석.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부산.
- 박지훈. (2013). 초등학교 영어교과서와 중학교 영어교과서와의 연계성.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부산.
- 오성순. (2003).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간 난이도 분석.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서울.
- 오준일. (2014). 고등학교 「영어II」와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지문에 사용된 어휘 수준에 관한 연구. *영어교과교육*, 13(2), 115-132.
- 이성희. (2006). 영어 교과서 선택 기준에 관한 연구. *영어교육연구*, 32, 25-39.
- 이수지, 김은정. (2010). 중학교 영어교과서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기능별 비교분석. *언어과학연구*, 54, 123-142.
- 이제우. (2016). 영어 I·II 교과서, 대학수학능력시험, EBS 교재 읽기 지문에 대한 어휘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충북.
- 이지민. (2011). 코퍼스 분석을 활용한 중학교 영어 교과서 어휘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서울.
- 이은정. (2008).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 읽기영역 난이도 연계성 분석.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부산.
- 임영진. (2014).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읽기 지문 분석.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부산.
- 서희. (2013). 기초영어 교과서의 어휘수준 적정선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 문, 부경대학교, 부산.
- 신보미. (2012).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읽기 전략 간의 학년별 연계성 분석: 7차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부산.
- 신정록. (2013).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EBS 영어 독해교재, 대학수학능력 시험 영어 독해지문의 이독성 비교*.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
- 장유경. (2012). *영어교과서 분석을 통한 이독성 지수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충북.
- 장인영. (2011).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3학년 영어교과서 듣기 말하기 활동 분석*.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부산.
- 전문기, 임인제. (2009). 코메트릭스(Coh-Metrix)를 이용한 중학교 1학년 개정 영어 교과서의 코퍼스 언어학적 비교 분석. *영어교육연구*, 21(4), 265-292.
- 전문기. (2011). Coh-Metrix를 이용한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개정 영어교과서 읽기 자료의 코퍼스 언어학적 연계성 분석. *언어과학연구*, 56, 201-218.
- 정나진. (2008).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제시된 문법 구조의 연계성 분석*.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서울.
- 조석주. (1983). Readability 공식의 개관. *영어영문학*, 29(2), 499-514.
- 최은호. (2004). *초등영어 읽기의 중요성과 효율적인 지도방법*.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서울.
- 천경록, 이재승. (2000). *읽기 교육의 이해*. 서울: 우리교육.
- 채지선. (2013). *개정 2007 교육과정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읽기 문제 난이도와 읽기 성취 기준의 적합성*.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서울.

- 하옥이. (2015).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와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읽기 지문 분석*.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부산.
- 하주연. (2009). *개정 7차 교육과정 중학교 1학년 영어 학습활동책 구성체계 및 난이도 분석*.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서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 *2013학년도 중학교 성취평가제 운영 매뉴얼: 영어과* (ORM 2013-20-10)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 *201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출제 연구*. 연구보고 RRE 2014-5-1.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 *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분석: 영어*. 연구보고. ORM 2014-30-5.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Anderson, J. C. (2000). *Assessing read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own, H. D. (2007).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3rd ed.). New York: Longman.
- Cunningsworth, A (1995). *Choosing your coursebook*. Oxford: Heinemann.
- DuBay, W. H. (2004). *The principles of readability*. Costa Mesa, CA: Impact Information.
- Hu, M. H.-C., & Nation, I. S. P. (2000). *Unknown vocabulary density and reading comprehension. Reading in a Foreign Language, 13*(1), 403-430.
- Hudson, T. (2007). *Teaching second language read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Johnson, R. K (1989). *The second language curriculu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m, Y., & Ma, J. H. (2012). Text readability of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and high school English II textbooks. *English Teaching*, 67(4), 195-218.
- Krahhen. S., & Terrell, T. (1983). *The natural approach*. Oxford: Pergamon Press.
- Littlejohn, A. (1998). The analysis of language teaching materials: Inside the Trojan horse. In B. Tomlinson (Ed.), *Materials development in language teaching* (pp. 190-21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 Laufer, B. (1992). How much lexis is necessary for reading comprehension? In P. J. L. Arnaud & H. Bejoint (Eds.), *Vocabulary and applied linguistics* (pp. 126-132). London: Macmillan.

<분석 대상 교과서>

- 김성곤, 송미정, 윤정미, 강은경, 문도식, 류애현, 염미선, Hass, J. L. (2011).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두산동아.
- 김성곤, 송미정, 윤정미, 강은경, 문도식, 류애현, 염미선, Hass, J. L. (2011). *Middle school English 2*. 서울: 두산동아.
- 김성곤, 송미정, 윤정미, 강은경, 문도식, 류애현, 염미선, Hass, J. L. (2011). *Middle school English 2*. 서울: 두산동아.
- 김성곤, 윤정미, 강은경, 이희경, 유원호, 윤여경, 장성옥, 주혜연, 박성민, 손지선, Hass, J. L. (2013).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두산동아.
- 김성곤, 윤정미, 강은경, 이희경, 유원호, 윤여경, 장성옥, 주혜연, 박성민, 손지선, Hass, J. L. (2013). *Middle school English 2*. 서울: 두산동아.
- (2013). *Middle school English 2*. 서울: 두산동아.

김성곤, 윤정미, 강은정, 이희경, 유원호, 윤여경, 장성옥, 주혜연, 박성민,
 손지선, Hass, J. L. (2013). *Middle school English 3*. 서울: 두산동아.
 양현권, 황종배, 이창수, 민병천, 김태영, 이동환, 이주연, 박은경, 정경아,
 김민영, (2013).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지학사.
 양현권, 황종배, 이창수, 민병천, 김태영, 이동환, 이주연, 박은경, 정경아,
 김민영, (2013). *Middle school English 2*. 서울: 지학사.
 양현권, 황종배, 이창수, 민병천, 김태영, 이동환, 이주연, 박은경, 정경아,
 김민영, (2013). *Middle school English 3*. 서울: 지학사.
 이다미, 김경환, 장영준, 한호, 이정화, 고미라, 이수열. (2011).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지학사.
 이다미, 이정화, 장영준, 한호, 홍영예, 고미라, 최문영. (2011). *Middle
 school English 3*. 서울: 지학사.
 이다미, 장영준, 이정화, 한호, 홍영예, 고미라, 최문영. (2011). *Middle
 school English 2*. 서울: 지학사.
 이재영, 서성기, 문안나, 배태일, 김신혜, 최아정, Hall. G. (2011).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천재교육.
 이재영, 서성기, 문안나, 배태일, 김신혜, 최아정, Hall. G. (2011). *Middle
 school English 2*. 서울: 천재교육.
 이재영, 서성기, 문안나, 배태일, 김신혜, 최아정, Hall. G. (2011). *Middle
 school English 3*. 서울: 천재교육.
 이재영, 서성기, 문안나, 배태일, 오영일, 조수경, 김지민, 이류미, 안혜정,
 이소연, Farser, J. K. (2013).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천재교
 육.
 이재영, 서성기, 문안나, 배태일, 오영일, 조수경, 김지민, 이류미, 안혜정,
 이소연, Farser, J. K. (2013). *Middle school English 2*. 서울: 천재교

육.

이재영, 서성기, 문안나, 배태일, 오영일, 조수경, 김지민, 이류미, 안혜정,
이소연, Farser, J. K. (2013). *Middle school English 3*. 서울: 천재교
육.

